

잇단 태극마크...전남체육 약진

강진군청 자전거 선수 3명·전남도청 펜싱 2명 국가대표 배출 순천복성고 우수 1명 청소년대표 선발...양궁·스쿼시도 도전

전남 체육인들이 잇따라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등 약진하고 있다.

4일 전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에 따르면 자전거 거와 펜싱, 우수 종목에서 2021년도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자전거 부문에서는 강진군청 선수 3명이 태극마크를 달게됐다.

강진군청 소속 MTB 선수 김민오가 지난 10월 사천 국가대표에 선발돼 스타트를 끊었다.

신동인과 황범연(이상 강진군청)도 지난 달 27일 경기도 광명에서 열린 2020년도 트랙 국가대표 선수선발 평가전에서 남자 중장거리 국가대표에 합류했다. 신동인은 올 시즌 3개 대회(KBS, 8·15경

축, 국가대표 선발전) 랭킹포인트를 합산한 결과 3위로, 황범연은 5위로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조선영(나주시청)은 단거리 여자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전남도청 펜싱팀도 국가대표 2명을 배출했다.

전남도청 펜싱팀은 지난달 27일부터 전북 익산에서 열린 2020 펜싱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여일부 에베 결승에서 유진실이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1위로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최세빈은 여일부 사브르 결승에서 준우승을 거두고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우수 부문에서는 청소년 국가대표가 나왔다.

순천복성고 우수팀 윤여중(2년)은 지난 2일 충북 보은에서 열린 제32회 회장배 전국유수선수권

대회 및 국가대표선발전 산타 -56kg급에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내년 3월까지 청소년 국가대표로 태극마크를 달게됐다.

양궁과 스쿼시는 태극마크를 겨냥하고 있다.

순천시청 양궁팀 최미선은 2021년도 국가대표와 도쿄올림픽 출전권에 성큼 다가갔다. 그는 현재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통과했고 내년 3월께 3차 선발전을 앞두고 있다.

2020년도 여자 스쿼시 국가대표 양연수를 비롯한 전남도청 스쿼시팀도 이달 말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른다.

김재무 전남체육회장은 "올 시즌 유난히 힘든 시즌을 보낸 선수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값진 결과를 이뤄냈다"며 "전남의 대표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전남체육의 자긍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청소년 국가대표를 배출한 순천복성고 우수팀. 왼쪽부터 배찬양·한동훈·윤여중 선수, 강승영 복성고 교장, 윤병용 전남유수협회장, 이태성 복성고 코치, 양성은 복성고 감독. <전남도체육회 제공>

광주 비아중 김재훈 학생육상 '2관왕'

전국 학년별 육상...창던지기·포환던지기 '금 2' 같은 학교 김찬송 여중 100m허들금·200m 은

비아중 김재훈(2년)이 제1회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년별 육상경기대회 2관왕에 올랐다.

김재훈은 최근 충북 보은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이 대회 남중 2학년 창던지기 부문 1위에 올랐다. 김재훈은 58.55m를 던져 최재노(55.94m, 익산지원중)를 2위로 밀어내고 우승했다. 그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전기록(57.32m)을 경신했다.

김재훈은 포환던지기 부문에서 16.29m를 찍어 역시 자신의 종전기록 15.57m를 넘어서는 등 기량이 상승하고 있다.

김찬송(비아중 3년)은 여중 3학년부 100m허들에서 15초23으로 우승했다. 이어 200m에서는 27초19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성적을 일궈냈다고 학교측은 전했다. 이 학교 고은아 코치는 그라운드 훈련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비대면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훈련을 뒷받침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비아중학교 김재훈(왼쪽)과 김찬송이 제1회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년별 육상경기대회에서 획득한 메달을 들어보고 있다. <비아중학교 제공>

영암서 14~15일 튜닝카 레이싱대회

전국 300여대 참가...이벤트 다양 내년 광주에서 페스티벌도 추진

사단법인 대한모터스포츠협회가 '2020 영암 튜닝카 레이싱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오는 14~15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 모터스포츠 발전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를 위해 영암군의 후원을 받아 치러지는 종합대회 형식의 레이싱대회이다.

전국에서 300여대가 참가하며 '드래그레이싱', '드리프트', '집카나', '튜닝카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경주장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레이싱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형 대회로 운영될 것이라고 대한모터스포츠협회는 밝혔다. 드레그 레이싱은 특수하게 개조된 고속용 자동차(hot rod)로 짧은 직선거리를 달리는 경주다. 집카나는 복잡한 코스를 도는 대회, 드리프트는 자동차 속도를 줄이지 않고 360도 회전하는 경주다.

대회 개막일(14일)에는 목포 평화광장에서 드리프트 SHOW-RUN과 카트 SHOW-RUN, 레이싱모델 포토타임 등 다양한 홍보 행사가 진행된다. 이틀날에는 드리프트 및 집카나 택시타임, 튜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지난해 10월 열린 집카나 경기대회. <대한모터스포츠협회 제공>

닝카 전시회, '포물러 VS 레디컬' 등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벤트가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대한모터스포츠협회 조성철 회장은 "이번 대회는 축제형 행사로 모터스포츠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줄 것"이라며 "대한모터스포츠협회는 광주 자동차산업 발전과 모터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7월 '2021 광주 튜닝카 페스티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사)대한모터스포츠협회가 주최하고, 영암군, (주)ASA, KARA 등에서 후원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세계 기록' 지데이·제프치르치르, 세계육상 올해의 선수 후보

여자 5000m 세계 기록을 세운 레테센벳 지데이(22·에티오피아)와 '여자 선수들만이 땀 하프 마라톤' 세계 최고 기록을 작성한 페레스 제프치르치르(27·케냐)가 세계육상연맹 선정 2020년 올해의 선수 여자부 후보로 뽑혔다.

세계육상연맹은 4일(한국시간) 올해의 선수 여자부 후보 10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데이와 제프치르치르는 주목받는 후보다.

지데이는 10월 8일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발렌시아 월드레코르데이 이벤트 여자 5000m에서 14분06초62의 세계 기록을 세웠다.

그는 티루네시 디바바(에티오피아)가 2008년 세운 14분11초15를 4초53 앞당겼다.

지데이는 크로스컨트리에서는 널리 알려진 유망주였다. 2019년 도하 세계선수권 여자 10000m에서 깜짝 은메달을 따내며 트레 종목에서도 주목 받은 그는 5000m에서 세계기록까지 세웠고, 2020년 올해의 선수 후보까지 올랐다.

제프치르치르는 10월 17일 폴란드 북부 그디니아에서 치른 세계육상연맹 하프마라톤 챔피언십 여자부 경기에서 1시간05분16초의 신기록으로 우승했다.

세계육상연맹은 여자 도로종목 기록을 '남성과 함께 땀 레이싱', '여자 선수들만 땀 레이싱'로 구분한다.

제프치르치르는 자신이 9월 6일에 세운 '여자 선수들만이 땀 하프마라톤' 1시간05분34초를 18초나 앞당긴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그는 올해 두 차례 세계기록을 작성했다.

두 선수 외에도 난민 출신 육상 스타 시판 하산(네덜란드), 중거리 최강자 페이스 키프에곤(케



여자 5000m 세계 기록 보유자 지데이.



하프 마라톤 세계 기록 보유자 제프치르치르.

냐), 마라톤 스타 아바벨 예스하네츠(에티오피아)가 올해의 선수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의 선수는 세계육상연맹 이사회, 회원, 팬의 투표로 선정한다. 세계육상연맹은 12월 6일 비대면 방식으로 시상식을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

미켈슨 "마스터스서 길이 47.5인치 드라이버 쓸 것"

필 미켈슨(미국)이 오는 13일(한국시간) 개막하는 '명인열전' 마스터스에 47.5인치 길이의 드라이버를 쓰겠다고 4일 밝혔다.

미켈슨은 이날 캘러웨이 골프가 운영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평소 사용하는 46인치짜리 드라이버보다 더 긴 47.5인치 드라이버를 마스터스 때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선수는 대개 44~45인치 드라이버를 사용한다. 그렇지 않아도 평균보다 더 긴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미켈슨은 드라이버 길이를 더 늘리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에 앞서 마스터스에 48인치 드라이버를 들고 나가겠다고 예고한 '괴력의 장타자'로 거듭난 브라이슨 디첼보(미국)에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48인치는 미국골프협회(USGA)가 규정한 드라이버 길이 한계치다. 드라이버 길이가 늘어나면 비거리도 늘지만, 통제가 어렵다.

미켈슨은 올해 마스터스 때 파 4홀과 파 5홀에서 티샷을 더 멀리 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드라이버 길이를 늘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마스터스를 3차례 제패한 그는 "1번, 2번, 8번, 14번, 17번 홀에서 벙커를 넘기는 티샷을 하려면 315~320야드를 날려야 한다. 그런 장거리 티샷을 친다면 벙커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예컨대 445야드짜리 파 4홀인 1번 홀에서 벙커를 넘기면 샌드웨지로 그린을 공략할 수 있지만, 벙커에 빠질까 봐 3번 우드로 티샷하면 6, 7번 아이언으로 두 번째 샷을 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